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 글	문상희	소속(학부/과)	기계공학과
파견 학기	2019-1 ~ 2019-2		파견 국가	일본
파견 대학	일본 카나자와대학교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먼저, 언어나 나라쪽에서는 이전부터 일본어를 배워와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고, 여학연수가 아닌 연구 교환학생을 택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도 국제전자박람회 참가 등 개인적으로도 해외의 기술과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졸업하기 전 해외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시기상으로도 3학년이 끝난 후 1년 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는 저에게 적절하다 생각하여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 (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교환학생으로서 일본에 입국하는 것은 단순 여행과 달리 비자 발급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자 발급 전 상대교(카나자와 대학교)에서 입학허가증을 보내줍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비자와 재류카드를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가능지역은 일본영사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서울과 부산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거주하였으므로 부산으로 가 비자신청을 하였는데 문제는 비자신청이 일사천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시간도 정해져있고,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그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상 하루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부산을 두 번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부산에서 하루 놀 생각으로 갈 수도 있으며,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영사관 근처에 대리수령과 우편으로 보내주는 업무를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비자신청은 본인이 하고, 수령 등은 학원에서 받아서, 신청인의 자택으로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카나자와 대학교에 도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카나자와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입니다. 입국 전 카나자와 대학측에서 기숙사 신청과 함께 어떻게 대학교에 도착할 것인지 묻는 메일을 보냅니다. 이전에 일본 여행을 많이 가 보셨던 분이라면 관광할 생각 없이 바로 대학 측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위치는 오사카의 간사이공항, 그리고 카나자와와 가까운 코마츠 공항에서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학 전 짧게나마 여행을 하려면 간사이 공항에서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카나자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오사카에서 3일, 교토에서 2일, 나고야에서 2일, 그리고 카나자와에서 하루 관광 후 기숙사에 입거하였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바로 코마츠 공항으로 갈 수 있으나, 오사카에서 카나자와로 가는 것보다 코마츠 공항에 내리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수강신청은 입학후 상세히 안내받았습니다. 첫 주에는 일본어 실력 테스트를 하며, 둘째 주부터 수강신청을 합니다. 원래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수강인원에 제한은 있으나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 (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카나자와대학교는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넓다고 소개를 받았으며, 확실히 부지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대학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으며 학생인 경우에는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넓어 식당과 생협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강의실까지 가는데 20~30분은 걸려 몇몇 학생들은 자전거를 사서 통학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전거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전학기 학생들이 사용하던 자전거를 받아 쓸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위치는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숙사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까지 간다고 해도 20분은 넘게 걸리며, 이온이라고 하는 대형매장(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느낌)까지 가려면 40분은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경사가 있는 길이라, 장을 보고 나서 걸어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버스비 또한 꽤 부담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날 기준으로 편도 170엔이었으므로, 왕복시 340엔이면 한국 돈으로 3600원정도입니다. 세 정거장에 이정도이며, 혹 멀리 나갈 일 있으면 가격은 역시 많이 올라갑니다. 변화가까지가 편도로 370엔입니다.

카나자와는 일본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있을 때에는 소문과 다르게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었지만, 소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있던 해는 비가 많이 안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녔고, 실제로 필요하였습니다.

학교 부지가 산으로 둘러싸여있어 벌레나 야생동물이 많은 편입니다. 벌레는 흔히 보이는 편이며, 다람쥐나 여우 등의 작은 동물은 종종 볼 수 있으며, 가끔 곰이 출몰하기도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주위 학생들은 몇 번 마주쳤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협에서는 곰방지 방울을 판매하고, 곰 주의 기간에는 경찰이 학교를 순회하며, 곰 목격정보를 메일로 알려주는 등 여러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 (수강과목 포함)

일본어 강의와 일본 문화 강의 각각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강의는 대부분 오전에 모여있고, 일본 문화 과목은 오후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수강신청 이전에 자신의 일본어 실력을 테스트하여, 그 점수를 기준으로 들을 수 있는 과목이 편성됩니다. 레벨 폭은 꽤 넓었으며, 초급 레벨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배우는 수준부터 시작해서 고급 레벨은 일본 취업을 위한 면접연습이나 일본논문읽기, 보고서 쓰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본어가 너무 낮다거나 너무 높아 강의를 듣기 힘들어 한다는 일은 잘 없었습니다.

일본 문화 강의는 말 그대로 일본 문화를 체험하는 수업이며, 대표적으로 서예나 가라테, 차도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강의도 일본어 실력에 따라 나뉘어지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어를 잘 못하는 반의 강의는 강사가 대부분 영어를 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연구교환학생이었으므로 오전에는 일본어 강의, 오후에는 일본어 문화 수업을 들었으며, 문화수업이 없던 날은 연구실에 가 연구를 하였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는 사키가케, 호쿠메이, 카이칸, 그리고 와카마츠 기숙사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숙사는 사키가케 기숙사입니다. 1층 3명, 2층 5명 각 방을 쓰고 있으며 화장실과 샤워실, 세안실, 세탁실, 주방 및 식탁은 공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살았으며 개인 방의 크기는 푸름관 2인실(2층침대)의 약 두 배 정도입니다. 그 외의 장소는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기숙사 신청시 별 다른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사키가케 기숙사로 배정받을 것입니다. 이불이나 옷걸이, 스탠드 등은 사키가케 기숙사 관리회사에서 대여해 주는 방식이며, 물론 비용이 청구됩니다. 내부 시설은 스탠드 세탁기(소음이 조금 큼), 화장실(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되어있습니다), 샤워실(생각보다 좁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의 전열기구(인덕션(IH))이며, 밑에 소형 오븐이 있으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개인 방 내부는 옷장과 책상, 책꽂이, 침대가 있으며, 에어컨은 냉난방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의 하나로서 벽이 나무로 되어있어 방음이 안됩니다. 기숙사비는 약 월 4만엔 정도인데 초기에는 대여비, 2월분 임대료, 보증금 등등 해서 약 10만엔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숙사만 이정도 필요하며, 이후 개인적으로 필요물품을 사기 위해 돈이 꽤 나가므로 입거시에는 최소 15만엔 이상 넉넉히 가져가는 편이 좋습니다. 기숙사 10분 거리에 학생식당이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았으며, 내용 대비 가격이 비싸 개인적으로 요리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사키가케의 인원은 RA(Rasident Assistant) 한 두명, 그 외 대부분 교환학생이며, 아주 가끔씩 현지 대학원생이 같이 거주하기도 합니다. RA는 기숙사 도우미 같은 느낌이며, 대부분 현지 대학생입니다. RA의 최소 조건이 영어 사용이므로 대화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생활의 경우에는 절약해서 살지 않는다면 매번 돈이 부족하였습니다. 저는 장학금으로 매월 8만엔 정도를 받고 있었는데 4만엔은 기숙사 임대료와 보험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월 사용 가능한 금액은 약 4만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거나, 황금연휴 등의 기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모았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면 되도록 간사이 공항으로 입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사이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시 바로 허가외 활동(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허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쿠메이 기숙사는 사키가케 기숙사 바로 옆 섹터에 있습니다. 사키가케보다 비교적 신식이며 그로 인해 임대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간이 조금 더 넓습니다.

카이칸 기숙사는 종교적이거나 신체적 이유 등 사유가 있는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종교나 윤리관으로 인해 타인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기 어려워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프라이버시가 강한 학생 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1인 1실이며, 방 안에 조리기구와 화장실 등이 모두 있습니다. 대학가 원룸같은 느낌입니다.

와카마츠 기숙사는 학교 외부에 있는 기숙사이며, 학교 밑 대학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로 인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용이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1인 1실과 2인 1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의 기숙사보다 넓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지원부서에서는 교환학생들을 굉장히 잘 도와줍니다. 어려운 점이 있거나 단순히 궁금한 것, 그리고 실수로 잊어버릴 서류 제출 등을 국제교류팀에서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알려주려 하고 도와주려 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곳이 국제교류팀입니다. 영어와 일본어 둘 다 가능하며 다양한 이벤트나 정보 등도 여기서 얻을 수 있어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일본 대학의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특성상 중,고등학교때 부터 동아리 활동을 중요시 여겨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며, 그 연장으로 대학의 동아리 활동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굉장히 강요적입니다. 여타 동아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동아리는 한번 가입을 하면 활동을 굉장히 강요합니다. 동아리는 학교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지원금의 기준은 동아리의 성적이므로 성적을 잘 내기 위해 부활동을 열심히 시키고,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보다 우선시 여겨집니다.

제가 둘러봤던 동아리들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국궁과 사격, 스포츠 캠프라, 승마 등이 있었습니다. 일본국궁동아리는 일본에서 사귀었던 친구가 가입했던 동아리인데 일본 활을 사용하여 과녁에 맞추는 활동을 하였으며, 여러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부대비용이 상당히 나갔으며, 개인 장구류도 구입해야 했으므로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도 조금 보았습니다.

사격 동아리는 실탄이 아닌 공기총과 레이저 포인터 방식의 사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은 외국인이 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조금 힘들어 외국인을 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교내에 승마장이 있었으며, 말도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회도 출전하는 등 열심히 활동하는 승마 동아리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활동을 하지 않고, 오전 6시부터 활동을 하며, 이를 위해 적어도 5시 반까지 승마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곡예부(저글링 등을 하는 부), 원예부, 재즈부 등 여러 부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이 싫다면 클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아리처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고 싶을 때 하는 느낌이므로 강제성은 크게 없습니다. 학교 비공인이므로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대규모의 활동은 하기 어렵지만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일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교환학생을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넓은 시야로 바라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과 사건을 만났으며, 그것에 익숙해지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모인 곳이므로 대부분 착한 친구들이며, 저의 경우에는 친구들 사이에 분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 집에서까지 들릴 정도로 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거나, 청소를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매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등의 여러 사람들을 꽤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불편하다면 확실히 말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국제교류부 등에 말해 조정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배려하고 참는다면 그 친구들과도 대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일본에 간다면 아마 일본인의 과도한 친절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조차도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물건 위치 하나 묻는다거나 단순한 일이라도 과도하게 친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익숙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일본인들의 특성이니 하며 흘려 넘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아르바이트를 할 시에는 본인도 이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이 힘들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생각보다 상당히 아날로그한 나라입니다. 현금이 아직까지 지배적이며, 관공서 등에 가면 처리 속도는 매우 느리며, 간단한 업무도 직접 대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 또한 익숙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팁이라고 한다면 역시 돈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유학생들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소모됩니다. 일본에서 알바해서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처음 넘어갔으나, 생각보다 아르바이트

를 구하기 어려우며, 구하게 되더라도 강의시간과 겹치거나, 학교의 위치 특성상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가기도 어려우며, 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확실히 한국보다는 일본이 시급이 높으나 기타 교통비 등으로 인해 손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일본어를 배우고 가는 편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영어가 통하지만, 장을 보거나 조금만 멀리 가면 일본어 이외에는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기초적인 영어라도 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바로 옆 나라에 가는 것임에도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사소하고 큰 차이를 느꼈으며, 간혹 서구권 친구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윤리관이나 논리 등은 상대적인 것을 깨달았으며 강요하면 안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있다면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위에 썼던 음악을 크게 듣던 학생은 학기 끝날때까지 음악을 틀었으며, 옆 방 메이트들은 계속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초기에 단호히 말하거나, 조정을 부탁했다면 서로서로 좋게 끝났을 것입니다.

학술적으로 배운 점은 연구 방법이나 보고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 실험시 실수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열음향엔진이라는 생소한 장비를 처음부터 배우기에 꽤나 힘들었으나 순차적으로 공부해 나가며 원리의 이해, 수식, 응용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적으로는 굉장한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일본어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공부에 어느정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역시 현지에 가서 직접 사용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RA의 도움과 학교 강의를 통해 빈 것은 채우고 새로운 것을 쌓아나가며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에 관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읽고 듣기만 가능한 영어만 가지고 해외에 나갔는데 막상 기숙사에 도착해보니 일본어보다 영어를 더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룸메이트들은 모두 영어를 능숙하게 썼으며, 심지어 모국어가 영어인 나라인 친구의 말은 정말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해 못하는 것은 넘기고 할만한 것은 다시 한번 되묻는 등의 시행착오를 거쳐 영어 회화에 어느정도 자신감과 실력이 붙었다 확신합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카나자와 근처의 겐로쿠엔(봄)



카나자와 성



교내 사진



카이칸 웰컴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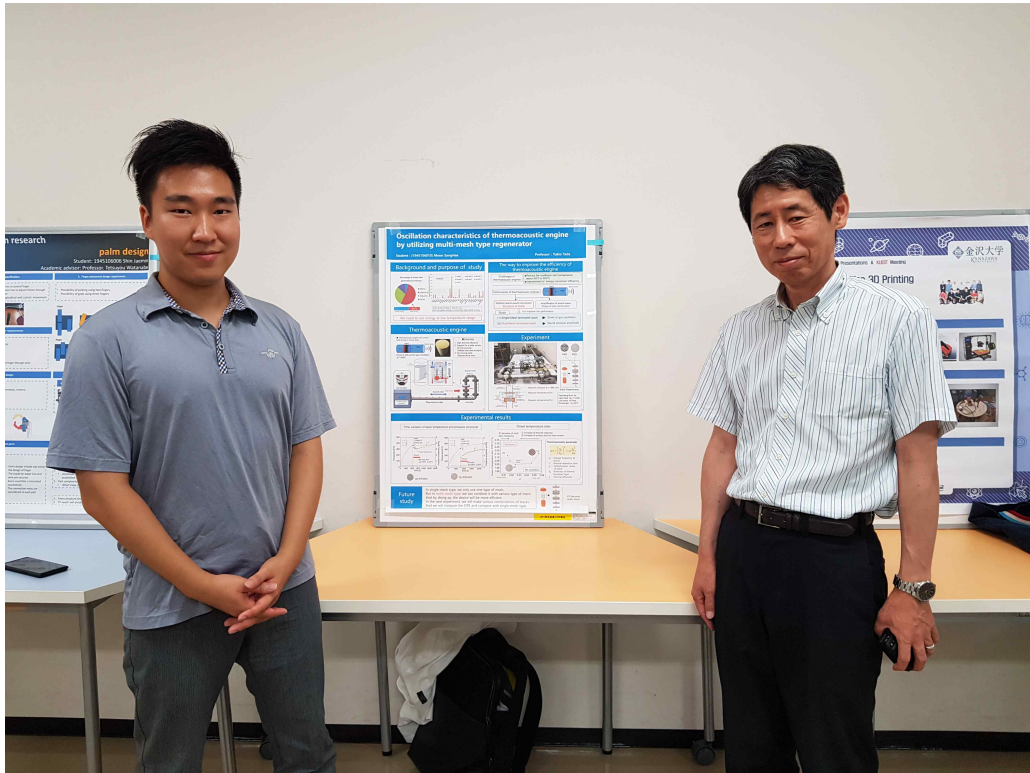
이 웰컴파티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좋습니다.



카나자와에서 중요한 축제중 하나인 백만석마츠리



불꽃놀이



열음향엔진 발표



일본 이시카와 민단 행사

일본에는 한국단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서 뿔어나온 조총련, 하나는 남한에서 뿔어나온 민단이 있습니다. 해방 후 일본에 살고있던 한국인들은 6.25 전쟁 이후 북한과 남한 어느 한 국적을 골라야만 했습니다. 북한을 고른 사람들은 조총련을 설립했고, 남한을 선택한 사람들은 민단을 설립했습니다.



윤봉길 의사 승급비



윤봉길 의사 기념비

해방운동을 하시던 윤봉길 의사께서는 의거하시고, 유체를 이 카나자와 산 어딘가에 묻었다 합니다. 민단에서는 이를 수소문해 유체가 있는 곳을 찾아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와 가까운 양지바른 곳에 승급비를 세워 기렸습니다.



카나자와 변화가